

# 진주시-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대평면 우수지 환경정화 활동'

✎ 이재화 기자 | ㉠ 승인 2024.06.03 15:14

[경남=뉴스프리존]이재화 기자= 진주시 대평면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3일부터 5일까지 제29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대평면에 위치한 진양호 상류 우수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한다.



진주시 대평면-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대평면 우수지 환경정화 활동' 장면.(사진=진주시)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는 대평면 자율방재단과 지역 주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진양호 상수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영농 폐기물과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대평면 딸기특화단지 인근 우수지는 청동기 박물관과 자전거 도로가 있어 아름다운 주변 경관으로 인해 진주시민과 외부 방문객에게 인기가 많지만, 불법 투기 쓰레기와 우수기에 유입된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대평면과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주변 경관 개선과 진양호 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합동으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환경정화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100만원 상당으로 지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농업 기반 시설과 진양호 상수원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남미경 대평면장은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한국농어촌공사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청정 대평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화 기자 | lh2664@nate.com